

’89年度 貿易振興 綜合 施策

資料 提供：商工部

1. ’88年 貿易의 評價와 ’89년의 展望

1. ’88年 貿易의 評價

가. 輸出 600億弗 達成

1) 輸出與件의 惡化

- 원貨 切上, 貨金 上昇, 輸出振興製度의 축소 등
輸出採算性의 악화로 수출업계의 어려움 가중
- 원貨 切上; (’87) 8.7%→(’88) 15.8%
- 제조업 임금상승율; (’87) 11.6%→(’88추정)
20%

- 貿易黑字規模의 확대에 따라 輸出에 대한 호의적 인식의 褪색

- 輸出增大에 대한 인식 악화 및 輸入振興 필요성 증대
- 輸出은 量보다는 품질고급화, 제품다양화 등 내 실화에 치중

2) 높은 輸出 增加勢의 지속

- 1 輸出增加率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떨어졌으나, 여전히 높은 28.4% 증가한 607億弗로 처음으로 600億弗 돌파

- 연간 증가액면에서 최고치인 134億弗을 기록

- 輸出物量 증가율은 점차 둔화한 반면, 원貨 切上 등의 극복을 위하여 輸出 가격은 상승: (’87)

10.1%→(’88.3/4) 15.8%

3) 輸出供給基盤의 稳固한 확대

- 中小企業의 輸出 참여 확대

〈輸出實績〉

(百萬弗, %)

	’76	’76-’80 (연평균)	’81-’86 (연평균)	’87	’88
금액	7,715	17,505	34,714	47,281	60,696
증가율	51.9	28.7	12.1	36.2	28.4

註: 輸出金額은 最終年度實績

〈年度別 輸出增加額〉

(億弗)

	’80	’82	’84	’86	’87	’88
증가액	25	6	50	44	126	134

〈輸出增加率 現況〉

(前年同期對比 %)

	’87	’88.1/4	2/4	3/4
수출증가율	36.2	35.1	20.1	30.1
• 물량요인	23.8	22.0	4.6	12.4
• 가격요인	10.1	10.8	14.8	15.8

資料: 韓國銀行

〈貿易業體 增加現況〉

(個社, %)

	’85	’86	’87	’88	增加業體數
전체	6,925	9,626	13,545	17,297	3,752
중소기업	5,882	8,517	12,288	16,008	3,720
(비중)	84.9	88.5	90.7	92.5	

○ 有望中小企業 및 中堅輸出企業 발굴 확대

- 有望中小企業 :

('86末) 3,685 → ('87末) 4,953 → ('88. 11末)
5,190개

- 中堅輸出企業 :

('86末) 486 → ('87末) 744 → ('88. 11末)
764개

4) 商品別 輸出構造의 고도화

○ 전자, 자동차, 철강 등 技術集約商品 중심으로 고도화

- 總 輸出中 중화학제품의 비중 : ('87) 51.7% →
('88) 54.2%

○ 악기, 가구, 문구 등 생활용품으로 輸出商品 다양화 진전

〈主要商品 輸出比重〉

(百萬弗, %)

	수출 ('88)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총수출중 비중		'86	'87	'88	구성비	구성비	증가율
			'87	'88						
화학 공업 제품	1,632	35.7	2.5	2.7						
전자, 전기	15,702	39.8	23.8	25.9						
철강제품	3,846	31.7	6.2	6.3						
자동차	3,616	23.3	6.2	6.0						
신발	3,801	34.6	6.0	6.3						
악기, 문구, 가구	661	36.9	1.0	1.1						
계	29,258	35.5	45.7	48.2						

5) 地域別 輸出偏重 構造의 改善

○ 美國 중심의 輸出市場 구조가 日本, EC 등으로 다변화

○ 東·西南亞 지역 輸出이 EC 지역을 추월

〈國家別 輸出比重〉

(전체 輸出中 비중, %)

	'87	'88
美 國	38.7	35.3
日 本	17.8	19.8
E C	14.0	13.4
東·西南亞	12.1	14.2
其 他	17.4	17.3

나. 높은 輸入增加勢의 유지

1) 堅實한 輸入增加勢 유지

○ 실질적 輸入開放 및 内수·확대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26.3%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 518億弗에 이를

○ 内수用 輸入增加勢가 두드러지고, 기대 이상의 성장에 따른 투자확대로 자본재 輸入이 큰 폭으로 증가

〈輸入實績〉

(億弗, %)

	'86	구성비	'87	구성비	'88	구성비	증가율
총수입	316	100	410	100	518	100	26.3
수출용	127	40.3	179	43.6	214	41.2	19.4
내수용	189	59.7	231	56.4	304	58.8	31.6
원자재	172	54.4	226	55.2	279	53.8	23.0
자본재	113	35.8	142	34.6	190	36.7	34.0
소비재	31	9.8	42	10.2	49	9.5	17.9

○ 輸入單價보다는 輸入物量增加가 輸入增加勢를 主導

〈輸入增加率 現況〉

(前年同期對比, %)

	'87	'88. 1/4	2/4	3/4
수입증가율	29.9	39.3	21.2	26.7
• 물량요인	20.9	25.6	9.2	14.0
• 가격요인	7.5	10.9	11.0	11.1

資料 ; 韓國銀行

2) 實質的 輸入開放

○ 2차에 걸친 輸入自由化로 선진국 수준의 자유화 실현

- 輸入自由化率 : 94.7% (공산품 99.5%)

- 잔존품목(535개, HS 10단위)에 대해서는 '89 ~ '91년까지 자유화계획 예시

○ 輸入監視制度의 완전 폐지

○ 輸入先多邊化 품목의 축소 : ('87) 147 → ('88) 98개 (HS 6 단위로는 222개)

○ 각종 法律에 의한 輸入制度의 정비 : 88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완화

○ 기타 輸入圓滑화 시책 추진

- 특별외화대출 40億弗 지원

-中小企業 輸入保證金 폐지 및 대기업 인하(15 →10%)

-輸入 관세율의 인하 : 공산품 평균관세율 ('87) 18.2→('88) 16.9%

3) 輸入市場多邊化의 진전

○최대 輸入國인 日本의 비중 축소

○對美 輸入增大 노력에 따라 美國의 비중 크게 증가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과 歐洲로부터의 輸入增加

〈國家別 輸入 比重〉

(전체 輸入中 비중, %)

	'87	'88
日 本	33.3	30.7
美 國	21.4	24.6
E C	11.2	11.7
中南美, 아프리카	3.1	3.1
기 타	31.0	29.9

다. 國際收支黑字 100億弗 초과

1) 貿易收支 黑字基調의 完全定着

○'86년 이후 연 3년째 흑자기록

○처음으로 100 億弗 이상의 무역흑자 달성

○흑자규모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國際收支黑字의 적정관리 문제 야기

〈年度別 貿易黑字 現況〉

(億弗)

	'80	'82	'84	'86	'87	'88
무역흑자	△ 44	△ 26	△ 10	42	77	116

2) 地域別 貿易不均衡의 구조적 개선

○對日 무역역조의 획기적 개선; ('87) △ 52→('88) △ 39億弗

-輸出의 획기적 증대(전년대비 42.3%增加) 및 输入의 안정적 증가

-對日 무역역조는 전년대비 13億弗이나 개선

○對美 무역불균형의 완화; ('87) 96→('88) 86億弗

-對美 輸出 증가율은 점차 감소추세이며, '88년 간 16.9% 증가에 그침

-對美 輸入은 總輸出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 45.7% 증가

〈對美, 日 輸出入 現況〉

(億弗, %)

	美 國		日 本	
	'87	'88	'87	'88
수출	183.1	214.0 (16.9)	84.4	120.0 (42.3)
수입	87.6	127.6 (45.7)	136.6	159.3 (16.6)
수지	95.5	86.4	-52.2	-39.3

註: ()는 전년대비 증가율

2. '89年의 貿易環境

가. 對外與件

○世界經濟의 저성장세 지속 및 交易量의 신장세 둔화

-美國의 國際收支赤字 누적, 開途國의 외채위기 지속으로 세계교역 신장세 둔화 예상

-金融 緊縮政策, 內需伸張의 한계 등으로 '89년 은 작년 예상 성장을 3.7%를 크게 밀도는 3.0% 전망

-'80년대 들어 계속 미루어져 왔던 국제적인 각종 불균형 및 구조적 문제점들의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노력의 본격화

○對美 通商摩擦의 심화 우려

-종합무역법 발효에 따라 反덤핑, 상계관세 제소 및 301조 제소 등 한국상품에 대한 輸入規制擴大

-농산물, 서비스 분야 등 美國의 비교우위분야를 중심으로 對韓 개방압력 강화

〈世界 經濟 展望〉

(%)

	'85	'86	'87	'88	'89
성 장	3.4	3.2	3.2	3.7	3.0
교 역	2.8	4.7	5.7	7.0	5.4

資料 : IMF 暫定委員會 報告書 ('88. 8)

- 원貨 切上, 내수촉진요구 등 우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개입 증대
 - 對韓 무역불균형 시정 압력 증대
 - 世界貿易의 相互主義 확대 및 불록화 확산
 -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에서의 各國間 이해대립에 따른 협상지연 등으로 雙務的 通商協商 擴大
 - EC통합, 브라질-아르헨티나 經濟統合試圖 등 자유무역 협정체결 증대와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 확대 등 지역주의 팽배
 - 달러貨에 대한 國際信認度 저하, 달러 권, 欧洲 통화권 등 3개 주요 통화권역으로의 분화 경향 증대
 -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韓國의 대외부담 가중
 - 통화가치 절상, 내수 확대, 무역장벽 완화 및 외환관리제도 개선 및 韓國의 世界經濟에의 기여요구 증대
 - 美國, EC, 日本 등 先進國의 對韓 경제심리 고조
 - 종래의 先·後進國 구분에서 黑字·赤字國 구분 의식의 확대와 對黑字國 역할 증대 압력 강화
 - 北方貿易 여건의 개선으로 신시장개척 분위기 성숙
 - 蘇聯, 中國의 개방화 정책과 동서화합 무드의 조성
 - 올림픽을 계기로 사회주의 국가의 對韓 접근 움직임
 - 東·西南亞, 中南美 등 開途國들의 對韓 경제협력요청 증대
 - 후발 개도국의 추격 심화
 - 섬유, 원구,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의 후발개도국 이전 확대
 - 태국 등 東南亞國家들을 중심으로 對韓 추격 본격화
- 나. 對內與件
- 經濟民主化에 따른 經濟政策基調의 변화
 - 농어촌 개발, 저소득층 所得基盤 확충 등 福祉 시책의 확대
 -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政府 개입의 축소
 - 민간의 자율적 결정과 책임증대 및 공정한 경쟁기회 부여
 - 원貨 切上, 高貨金 추세 등 採算性 악화 顯在化
 - 원貨 切上 지속에 따른 불안감 증대
 - 채산성 악화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다달아 '89년 들어 추가적 채산성 악화는 기업손실에 직접 연결
 - 금융, 자본자율화의 초기단계에서 企業 자금조달이 일부 경색될 우려
 - 內需市場의 경쟁 가속화 및 輸出에 대한 인식 악화
 - 시장개방에 따른 外國業界의 진출,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내수전환 등으로 國內市場에서의 경쟁 가속화
 - 수출에 대한 인식악화 및 낙후부문의 구조조정 본격화
 -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과 지속적 성장간에 자원배분 제약
 - 경제력 집중완화 등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 사회분위기 고조
 - 경제성장, 정치적 민주화 추세에 따른 각계의 욕구 증대, 마찰 격화
 - 궁정적 여건으로는 정치발전에 따른 경제의 활성화 기대, 輸出 상품의 대외 이미지 개선 및 國民의 자신감 증대
 - 기업가의 자본주의적 이윤 동기에 의한 성취의욕 증대 및 我國 상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 기대
 - 國內經濟는 안정성장 궤도로 복귀
 - 國內經濟는 한자리 숫자의 안정 성장으로 전환

〈國內 經濟 展望〉

(%)

	'87	'88	'89전망
경제성장을	12.0	12.1	8.0 (8.2)
도매물가상승률	0.5	3.0	3.0 (2.7)
소비자물가상승률	3.0	7.0	5.0 (5.7)
실업률	3.1	2.6	2.8 (3.1)
경상수지(10億弗)	98.5	143	95 (98)
무역수지(")	76.6	116	75 (80)

註; ()는 韓國銀行

- 물가는 國際收支黑字, 경기호조로 5%대의 높은 상승세 지속

(億弗)

3. '89 輸出入 및 貿易收支 展望

가. 總量 展望

	'87	'88	'89전망
경상수지	98	143	95
무역수지	77	116	75
• 輸出	462(473)	597(607)	685(700)
• 輸入	385(410)	481(518)	610(650)
무역외이전수지	21	27	20

註 : () 内는 通關基準

輸出 700億弗(15.3% 증가)

○ 物量은 크게 둔화된 5% 수준의 증가에 머물것이나 단가는 기업들의 품질향상 노력에 힘입어 9.8%정도 상승 전망

○ 輸出을 주도해오던 자동차, 전차 등의 輸出이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고, 섬유 등 경공업 제품은 한자리 숫자의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임

輸入 650億弗(25.5% 증가)

○ 輸入은 業界, 政府의 輸入 증대 노력에 의해 25.5%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

○ 輸入증가는 주로 物量 증가세가 주도(15%수준)

할 것으로 보이며 單價는 國際原資材價 안정, 원貨切上 등으로 9% 대의 안정세 유지

貿易收支 75億弗 黑字(41億弗 축소)

○ 輸出 증가세가 둔화되고 輸入의 상대적 증가세가 높아 貿易收支 黑字는 지난해 수준보다는 크게 축소 전망

○ 經常收支는 貿易黑字 지속과 貿易外, 移轉部門의 黑字 가세로 95億弗 전망

나. 主要品目別 輸出 展望

(億弗, %)

品目別	'87	'88	증가율	'89展望	증가율
총수출	473	607	28.4	700	15.3
○ 重化學製品	245	329	34.5	390	18.5
- 철강, 금속	43	60	38.5	72	20.0
• 콘테이너	4	8	75.3	10	25.0
- 기계류	62	82	31.3	93	13.4
• 일반기계	9	12	30.4	14	16.7
• 자동차	29	36	23.3	43	19.4
• 선박	11	18	54.6	16	
- 전자, 전기	112	157	39.8	190	21.0
• 산업용전자	22	30	37.6	38	26.7
• 전자부품	37	59	56.7	74	25.4
• 가정용전자	49	63	28.2	72	14.3
- 화학	27	30	11.1	35	16.7
△ 11.1					
○ 輕工業製品	200	244	22.0	271	11.1
- 섬유류	118	141	19.4	153	8.5
• 섬유제품	82	97	18.8	104	7.2
• 섬유직물	29	34	17.8	37	8.8
- 생활용품	51	63	23.6	72	14.3
• 신발	28	38	34.6	43	13.2
• 완구, 인형	11	10	△9.7	10	-
- 기타	31	40	29.0	47	17.5
• 합성수지제품	9	13	39.7	14	7.7
• 타이어	6	8	21.6	9	12.5
○ 1차산품	28	34	20.0	39	14.7

다. 部門別 輸入 展望

○用途別

(億弗, %)

	'87	'88	증가율	구성비	'89전망	증가율	구성비
총 수 입	410	518	26.3	100.0	650	25.5	100.0
원자재	226	279	23.0	53.8	337	20.8	51.9
자본재	142	190	34.0	36.7	251	32.1	38.6
소비재	42	49	17.9	9.5	62	26.5	9.5
수출용	179	214	19.4	41.2	254	18.7	39.1
내수용	231	304	31.6	58.8	396	30.3	60.9

○産業別

(億弗, %)

	'87	'88	증가율	구성비	'89전망	증가율	구성비
총 수 입	410	518	26.3	100.0	650	25.5	100.0
○동림수산물	54	73	34.7	14.1	88	20.5	13.5
○광산물	60	64	5.5	12.3	84	31.3	12.9
○화공품	79	99	24.8	19.1	130	31.3	20.0
○섬유류	15	17	11.3	3.3	19	11.8	2.9
○철강, 금속	38	53	38.9	10.2	68	28.3	10.5
○기계류	86	109	26.5	21.1	142	30.3	21.8
○전자, 전기	63	84	32.5	16.2	111	32.1	17.1
○기타	5.3	6.1	14.8	1.2	8.0	31.1	1.2

II '89年度 施策 基本方向 및 内容

1. 基本 方向

擴大貿易立國의 기반 조성
貿易收支黑字의 적정화

○對外 通商交涉活動의 강화

-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사전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 전개

○先進貿易体制의 구축

- 국제적 규범과 우리 經濟의 위상에 맞게 우리 무역체제를 선진화

輸出; ('88) 607億弗→('89) 700億弗

輸入; ('88) 518億弗→('89) 650億弗

收支; ('88) 116億弗→('89) 75億弗

2. 主要 施策 内容

가. 輸出의 内實化 및 輸出能力의 지속적 보강

1) 輸出産業 설비능력 확충

○輸出産業 공급능력 점검 및 경쟁력 실태조사(2~5월)

- 조사결과 분석후 대응방안 수립, 시행

○尖端産業, 技術集約産業에의 투자 촉진

- 기계, 로보트, 通信 등 기술집약산업과 부품, 新

○内実化를 통한 輸出의 지속적 신장

- 양적 신장에서 질적 향상으로, 가격경쟁력 위주에서 종합경쟁력 제고

○輸入의 획기적 증대

- 輸入開放의 실질적 확대와 적극적인 輸入促進 施策의 추진

- 素材 등 高附加價值 산업분야
-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제도 및 절차 개선으로 投資誘引制度를 보완
- 中小, 地方産業 육성을 통한 輸出底邊의 확산
- 해외정보의 신속한 제공, 마케팅 활동 및 기술 지원
 - 有望中小企業, 中堅輸出企業의 지속적 발굴 및 경쟁력 확충
 - 大企業과의 분업적 협력관계 강화
 - 2) 輸出商品 구조고도화 및 품질경쟁력 강화
- 원貨 切上, 賃金引上 등에 따라 산업구조조정 촉진방안 수립, 시행
-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류 등 기술집약상품의 輸出主宗產業化
 - 섬유,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부문의 품질고급화, 생산성향상 추진
- 세계일류화 3차년도 사업 추진
- 상표도안, 國内外 상표등록 등 자기상표 輸出 지원
 - 해외광고, 國内外展示會, 박람회 참가 등 해외 홍보 지원
-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운동의 가속화
- 공업기반기술 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제품 생산 기술개발, 품질향상 촉진
- 디자인 고급화 및 고유상표 개발
- 特許廳, KOTRA, 關聯組合을 통해 상표개발 및 해외등록 지원
 - 디자인 보호제도 정착, 패션 정보제공, 국제규격 획득 지원 등
 - 3) 輸出採算性 보완시책의 지속 추진
- 業界的 자율적인 대응능력 강화 유도
- 공정개선, 자동화를 통한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지원
 - 신제품 개발, 업종 전환, 해외투자 등 구조 조정
- 주요 原資材의 공급원활화 대책 추진
- 直輸出物量 조정, 할당관세 적용, 調達廳 비축 물자 방출
 - 綜合商社의 원자재 輸入機能 확대
- 輸出秩序確立을 통해 輸出商品 제값받기 실현
- 4) 國際去來의 다양화 지원
- 民間商社의 해외진출 활동의 다원화
- 산업설비 輸出 및 海外投資 지원
- 종합무역상사의 國際去來의 다각화
- 海外投資의 확대
- 海外投資 정보제공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제도의 개선
 - 投資有希望國과 투자보장협정 이중파세 방지 협정 체결 추진 등 여건조성
 - 投資促進團 파견(15회) 및 투자 세미나 개최
 - 국내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유통설비의 해외이전 촉진
- 連繫貿易 추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 동남아, 중남미 등 개도국 시장 개척과 東歐團과의 교역 증진에 활용
- 商社의 자금조달 및 外換去來의 원활화 도모
- 貿易어음제도의 도입 및 先物換去來의 활성화
 - 원貨의 국제화를 위한 여건의 조성
 - 5) 輸出關聯 제도의 개선
- 중소기업 물량 확대, 퀴타 조기 배정 등 섬유 퀴타 운용의 합리화
- 輸出 자율규제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시장다변화, 제품고급화 촉진
- 종합적인 戰略物資 輸出 관리방안 마련
- 지원절차 간소화, 지원대상품목 확대 등 廷拂輸出支援의 강화
- 輸出保險公社 설립 추진 등 輸出保險의 활성화 도모

나. 輸入의 확대

- 1) 輸入自由化와 關稅率 인하의 지속적 추진
- 輸入自由化의 계속 추진('88末; 94.7%)
- 잔여 輸入制限 품목에 대한 단계적 輸入自由化 추진
 - 工產品은 2~3년내 완전 輸入開放
- 輸入關稅率의 점진적 인하
- 工產品 輸入關稅率의 인하; ('88) 16.9 → ('89) 11.2%
 - 할당관세의 적용 확대; 國產不可 시설재, 부족 원자재, 소비재

- 2) 輸入制限制度의 대폭 개선
- 개별법에 의한 輸入制限의 정비
 - 糧穀管理法, 飼料管理法 등에 의한 물량적 輸入規制의 개선
 - 工產品品質管理法 등에 의한 검사, 형식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의 개선
 - 輸入保證金의 조기 폐지 추진 ('89 상반기)
 - 對日逆調改善 추이에 따라 輸入先 多邊化 품목의 조기 축소
 - 중고품 輸入의 허용 확대, 受託販賣輸入 확대 등 제도 개선
 - 3) 輸入 관련 금융 지원의 확대
 - 응자규모 확대; ('88) 200→('89) 1,000억원
 - 응자대상을 주요 자원에서 시설재, 소비재로 확대
 - 延支給 輸入 대상품목의 확대 및 延支給期間 연장
 - 4) 民間商社의 輸入機能 보강
 - 輸出用 원자재 비축 輸入 참여 지원
 - 곡물 輸入에 대한 商社의 참여 확대
 - 民間商社의 輸入 전담부서 보강 및 輸入 전문업체 육성
 - 5) 輸入에 대한 홍보, 宣傳 강화
 - 輸入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대외 홍보
 - 국민인식 조사 실시, TV 등 홍보강화 및 수입 상품의 정보 보급
 - 수입개방, 제도개선 결과의 대외 홍보
 - 소비재 輸入확대 및 건전한 소비형태 정착 유도
 - 家庭用品 輸入관세 및 특소세, 취득세율의 인하 추진
 - 소비재 輸入, 유통산업의 육성 및 계도; 주요 백화점, 슈퍼마켓 등

다. 地域별 貿易의 균형화 및 市場開拓 활동의 강화

 - 1) 對美黑字의 축소; ('88) 86→('89) 65億弗
 - 對美輸入의 실질적 확대
 - 종합, 업종별 구매사절단의 수시 파견
 - 첨단산업설비의 對美 輸入 유도
 - 미국의 州別 통상사절단 유치 확대
 - 輸入先轉換施策의 지속적 추진
 - 주요 輸出品목의 시장다변화 노력 강화
 - 2) 對日 적자의 구조적 개선; ('88) △39→('89) △34億弗
 - 貿易逆調 개선 5개년 계획의 3차년도 사업 추진
 - 수출촉진단의 계속적 파견, 일본 유통시장 참여 등 다각적인 輸出 증대방안 강구
 - 輸入先轉換 및 輸入代替 기반 조성
 - 韓日間 산업협력 사업의 적극 추진
 - 중소기업 분야, 부품산업,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통한 수평분업 확대
 - 통상장관회담 신설 추진 등 통상협력체제의 구축
 - 3) EC와의 협력 증대; ('88 교역규모) 142→('89) 175億弗
 - '92년 EC 통합에 대비한 정보수집 및 연구체계 강화
 - 투자 확대, 기술협력 증대 등 산업협력 확충
 - 투자조사단 파견 등을 통한 EC域內 투자 확대
 - 기술협력 강화 및 업종별 유대 강화
 - 품목별, 지역별 질서있는 수출과 수입의 확대
 - 수출입의 확대균형 차원에서 對EC 수입 확대
 - 4) 開途國市場 진출 확대
 - 對外經濟協力基金 활성화 등 經濟協力基盤의 확충
 - 투자 활성화, 통상협력단의 상호교류 등 경제 협력 강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출방안 마련, 추진
 - 기업인 및 기능공 초청, 연수사업 등 통상교역 활동의 다양화
 - 5) 北方經濟交流의 본격 추진
 - 北方交易 여건의 정비
 - 인적교류의 확대 및 교역제도 보완
 - 공산권 무역 정보 보급 확대
 - 南北 물자교역의 적극 추진
 - 南北交易에 관한 特別法 제정 추진
 - 輸入規制의 입장→적극적 輸入許容 입장으로 전환

〈P. 81로 계속〉

품질관리진단을 실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하겠다.

- 가) 형식위주의 진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 나) 일상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한다.
- 다) 사장이 반장이 되어 진단을 실시하고 반원은 중역으로 하되 필요시 부·과장을 수행시킨다.

라) 진단목적을 분명히 하고 경우에 따라 진단 종점항목을 결정해 준다.

마) 진단 결과보고서를 정리, 액션을 취해야 할 항목을 관련부문에 배포한다.

바) 규정이 잘 되어 가고 있어 이것이 각 부문에서 실지로 행해지고 있는가 조사한다.

P. 61에서 계속

라. 先進무역 체제의 구축

1) 2000년 韓國貿易의 전망과 장기 정책방향의 설정

- 年度別 산업 및 貿易의 전망과 위상 정립
- 輸出入 체제의 선진화, 무역구조의 개선 및 國際 통상능력의 강화 방안 강구

2) 輸出入 제도 및 체제의 내실화

○ 貿易管理의 선진화

- 현행 輸出入 關聯 제도와 절차를 GATT 체제에 맞게 단계적 개선 추진
- 輸入 개방 및 外換 자유화 등 개방화 시책의 지속 추진
- 貿易機能의 민간자율적 관리체제 확립

○ 貿易 관리의 전산화 추진

- 輸出入 업무의 제반절차를 VAN을 통한 자동 처리로 경쟁력의 극대화 도모

3) 貿易關聯機關의 효율적 역할 분담

- 貿易協會, KOTRA, 무역대리점협회 등 무역 관련기관의 기능, 재검토, 조정
- 무역관련기관의 수입기능 보완

○ 貿易關聯機關의 서비스 기능의 제고

4) 產業被害救濟 제도의 강화

- 산업피해의 신속한 조사 및 구제를 위한 貿易委員會의 기능 보강

○ 개방산업에 대한 輸入 영향조사 실시 및 적기 대응

- 지적소유권 침해, 서비스 시장 피해조사 등 산업 피해구제 범위 확대 및 공정한 구제수단 강구

5) 國際 貿易질서에의 효율적 대응

- 우루파이 라운드 등 새로운 國際 貿易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

○ 새로운 협력 구상에 대한 입장 정립; 自由貿易地帶, EC 統合, 환태평양 경제협력 등